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감시소에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계획과 조종방사탄의 전술기술적제원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시험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방사탄들이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거세차게 날아올라 푸른 하늘가에 원썩렬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파편지뢰탄, 지하침투탄, 산포탄에 의한 여러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된 시험사격에서는 고에너르기물질을 혼합하여 위력을 높인 방사탄전투부의 파괴살상력이 놀라울 정도로 위력하다는것을 검증확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조종방사탄의 명중성과 적대상물로 가상하여 견고하게 설비한 인원, 땅크, 포, 전투차운페부들을 콩가루같이 부서뜨리는 전투부의 놀랄만 한 위력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수들을 전몰시킬 또 하나의 강위력한 주체탄, 통일탄을 쓸수 있는 위엄높은 로동당시대의 주체무기가 연구개발완성된것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러 주체적인 국방력강화발전에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당의 국방과학기술증시정책이 낳은 자랑찬 결실인 동시에 우리의 자립적인 국방공업의 위력이 얼마나 무진막강한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식의 신형대구경방사포들이 계열생산되게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군대의 라격력을 질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금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해



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박근혜가 지금 뒤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단호》하고 《용감》한척이라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미국놈들과 맞장구질을 해대며 무모한 무력증강놀음을 벌려놓고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있는데 이는 쇠를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누가 봐도 못나고 어리석은것이라고 하시면서 력대 집권자들이 림종을 앞두고 마지막발악을 하던 때를 련상시키는 박근혜의 광기는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것으로 될뿐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그 어떤 집권자가 올라앉아도 박근혜와 같이 무분별하고 못한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톡톡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우주리용권리를 빼앗아보려고 생떼를 써오던 적들이 우리를 겨냥한 저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있는 지금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진행한 새로운 무기체계시험을 놓고는 또 어떤 요사스럽고 간교한 꾀설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발악할지 두고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박근혜 《정권》이 미제를 겨냥하고있는 우리의 핵타격무장의 조준경안으로 자발로 게바라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리성적으로 분별있게 처신하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일 박근혜가 미국상전의 핵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못난 불장난질을 해대며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사소한 군사적망동질이라도 저질러놓는다면 그때에는 미처 후회할 시간적여유도 가질수 없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섬멸의 포문을 열어두고 박근혜의 생존욕과 생존방식을 지켜볼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 학부에서 조성된 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반의 최후결전준비를 완성하

기 위하여 이번 시험사격에서 그 위력이 확증된 신형대구경방사포를 비롯한 최근 개발한 타격무기들을 최고사령부의 작전전역들에 하루빨리 실전배비함으로써 적들이 제땅에서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불편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적들이 과시성, 위협성의 각종 전략전술무기들을 조선반도의 남쪽땅에 배비해놓고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며 위협공갈을 일삼고있는 지금이야말로 핵무력강화의 필요성을 보다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력사적 시기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핵보유를 선택하고 핵무력을 백

방으로 장성강화시켜온 길이 얼마나 선견지명하며 천만번 정당했가를 확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제가 군사적강권을 휘두르며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쟁과 재난을 서슴없이 강요하고있는 오늘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고 하시면서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 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 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국수호의 전초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과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적구상에 따라 마음먹은대로 작전을 진행할수 있는 새로운 공격형최첨단무장장비들을 계속 줄기차게 개발완성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올해에 군력강화에서 새로운 질적비약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리라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유엔안보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서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인공 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완전성공에 기절초풍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3월 3일 새벽 드디어 유엔안보리사회 이름의 도용하여 악랄한 대조선 《제재결의》 제2270호를 조작해 내었다.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미국의 오바마는 《환영메세지》라는 것을 발표하고 국무장관 케리를 내세워 《지지성명》을 공표하게 하였으며 잇달아 어중이떠중이들은 멋없이 그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의 효과성을 떠들어대면서 우리 군대와 정부의 핵심일군들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명한 《독자제재》까지 덧붙여 발표하였다.

일본도 덩달아 아베의 《지지론평》과 기사다의상의 《지지담화》를 내보내었다.

지어 남조선의 박근혜당까지 한밤중에 《성명》이라는 것을 내고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니, 《단호한 메세지》니 뉘나 하고 고아대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세계를 진감시킨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에 질겁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57일간이나 쑥덕공론을 벌인 끝에 조작해낸 이번 《제재결의》는 이미 예견된것으로서 별로 놀랄것도 새로운것도 아니다.

문제로 되는것은 이번 《제재결의》가 당치않은 구실로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주권국가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가장 로골적이며 가장 극악한 국제적범죄행위라는데 있다.

이미 천명헌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가증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핵억제력 확보조치이며 우리의 위성발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

법적인 권리행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모결탁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전면도전하는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세계앞에 천명한다.

첫째, 유엔안보리사회의 악랄한 대조선 《제재결의》를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극악한 도발로 락인하고 단호히 배격한다.

이번 대조선 《제재결의》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유엔안보리사회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꺾버리고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장단에 놀아나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작해낸 범죄적인 문건이다.

원래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결의》들을 단 한번

도 인정해본적이 없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로골적으로 짓밟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우리의 대응에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물리적대응을 포함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될것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유린당하는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가 아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 유엔 《제재결의》에 가담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셋째, 유엔안보리사회가 저지른 이번 특대형국제범죄를 계기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정치질서를 결정적으로 깨버리기 위한 범세계적 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

정의와 공정성이 유린되고 이종기준과 부정의가 판을 치는 세계의 흐름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자대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이 제멋대로 재단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앞으로 병진로선의 기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위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과감히 전진할것이다.

세계는 유엔 《제재결의》를 천백배의 대응조치로 맞받아나가는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해나선 일간망둥이들의 독판치기로 전락된 유엔의 죄 많은 력사를 어떻게 끝장내고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어떻게 바로잡아나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제 105(2016)년 3월 4일 평양

《그 어떤 〈제재〉로도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한다》

각 계층 군중들의 성토

박근혜당이 미국에 추종하여 《대북제재결의안》이라는것을 조작해내는데 앞장서 날친것은 정말 가소롭기 그지 없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수소탄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로 하여 생겨났고 강철이 불속에서 단련되듯이 공화국은 바로 그 《제재》속에서도 더욱 강해질것이다.

《제재》늘음으로 적대세력들이 보게 될것은 자강력으로 더욱 강대해지는 공화국의 위력이며 얻을것은 쓰디쓴 참패뿐이다.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고 후손만대 번영을 담보하는 불패의 힘이고 만능의 보금인 민족의 강대한 힘을 없애려 발광하는 저 박근혜당을 후세의 력

사가들이 과연 어떻게 기록할것인가.

민족의 수치로, 만고의 역적무리라고밖에 달리 부를수 없을것이다.

은 세상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남들은 그렇게 가지고 싶어도 가질수 없는 민족의 귀중한 보물중의 보물을 저 모자라는 멍청구리 박근혜할미는 없애지 못해 악을 쓰며 지랄한다고.

저쯤되면 약이 없고 갈때가 되었다.

허나 죽기 전에 똑똑히 알아두라.

늘다리 로파가 발광할수록 제명은 그만큼 짧아지고 젊음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은 더욱더 강대해진다는것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김덕성

미국의 사족하여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제재》결의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의 마음은 조선사람의 정신력과 기질이 어떤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수 있다는 우리의 사상의 힘을 적대세력들은 알지 못하는것 같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를 두고 질겁을 하는 적대세력들에게 령도자의 두리에 온 나라가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 얼마나 위력하고 무서운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적대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조금

도 굴함없이 창조와 변혁의 기적을 수놓아가는 오늘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일심단결의 힘으로 거어 다는 소식을 들은 나의 마음은 조선사람의 정신력과 기질이 어떤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근로단체출판사 부장 김진수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후대사랑의 뜻으로 훌륭히 개진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밝은 창가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와 맑은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것은 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만이 아니라 조국땅 그 어디서나 꽃피는 후대사랑의 송고한 메아리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벌리는 《제재》소동은

공화국의 이 아름다운 미래에 검은구름을 드리워 보려는 추악한 망둥이다.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이 씩어빠진 자본주의제도에서 이지러지고 스러져가는 아이들처럼 될것을 바라보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하지만 어렵도 없다.

우리 공화국에는 온 나라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령도자께서 계신다.

비바람, 불구름도 다 막아주시며 사시장철 아름다운 화원만을 가꾸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없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점 그늘도 비낄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망둥은 우리 아이들의 꺼질줄 모르는 웃음소리, 노래소리에 이미 물거품이 된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어떤 압박이나 《제재》도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락원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다칠수 없을것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지도교원 전해영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첫 수소탄시험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로 세계를 진감시킨 그 기세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질풍노도로 나아가고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

속공격해나가는 공화국의 곳곳마다에서 총진군, 총공격전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그런데 감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자주적공화국의 이 거세찬 불길에 그 무슨 《제재》의 찬물을 끼얹어보려고 한다.

《제재》따위를 할테면 하라.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은 미국이 버려놓은 《제재》소동같은것에는 꺾이지 않는다.

우리 화력발전소 보이라에 물 몇바께뜨를 퍼붓는다고 불이 꺼질수 없는것처럼 승리자의 대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눈에는 그따위 《제재》같은것이 용암에 뿌려진 쥐오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은 더 많은 전력생산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생명선을 지킬것이며 보이라의 거세찬 불길, 총진군의 불길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를 깰것이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직장장 로강철

기저기 아양을 떨며 동족대결을 구걸하는 역겨운 추태 정말 더럽다.

자강자력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는 공화국을 외세의존에 명줄을 걸고있는 박근혜파위가 어찌보겠다는것은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 웃다 꾸레미러질 노릇이다.

어리석은 망상으로 그 누구를 먹어보겠다고 날뛰는 박근혜는 매국역적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을 기어코 심판하려고 분노와 복수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이 나라 수백만 청년들의 멸적의 기상에 제 먼저 비명객사할것이다.

김철주사범대학 학생 정운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짝자꿈이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제재결의안》이라는것을 또 만들었다는데 격분을 금할수 없다.

승냥이같은 미국놈이나 교활하기가 여우 찹찹먹을 섬나라족속이야 우리 하구 불구대천의 원수니까 그렇다치고 식민지노복에 불과한 박근혜파위가 제 죽을줄도 모르구 너덜대는 팔은 차마 눈뜨고 못 봐주겠다.

동족과 피를 물고 해보는 박근혜당이야말로 동족대결에 미친 놈들이 아니구 무엇인가.

박근혜가 비명횡사해버린 제 예비의 뒤를 이끌달도 멀지 않았다.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2동 리철성



시간으로 보는 판이한 두 모습



반대로 북은 이 시간을 적대세력을 특히는 미국에 또 한차례의 악몽의 시간으로 새겨주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미국에 있어서 이 9시는 어떻게 해서나 한사코 가로막으려 했던 시간이 아닌가.

조선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고 발전하기를 원치 않는 미국은 북이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통보하였을 때부터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이 지구관측위성을 쏘아올리는 그 시간을 눈을 편히 뜨고 보고만 있어야 했다.

지난 1월 조선에서의 첫 수소탄시험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오전 10시 북이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그 충격적인 시간은 미국에 있어서 절망적인 시간이었다. 강력한 핵보검을 들어친 북이 승자의 환호를 터칠 때 미국은 저들의 핵독점에 파렬구를 낸 그 시간을 두고 패배의 고뇌를 삼켜야 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조미대결전은 북에는 승리를 준 시간이요 미국에는 패배를 준 시간의 연속이었다.

지난 1월 6일 조선에서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오전 10시라는 그 의미에 대해 먼저 보기로 하자.

세간에서는 그 10시의 의미에 대해 별로 의미를 돌리지 않았지만 실제 그 시간은 미국에 있어서 기억하기조차 싫고 새겨볼수록 수치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의 판문점에서는 정전협정조인식이 있었다.

미국력사상 패전이란 말자체를 모르고 승전만을 거듭해왔다고 자처하던 오만무례한 미국이 청소한 공화국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문에 도장을 찍어야 했던 그날은 미국의 전쟁력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역사에 기록

되었고 항복서와 같은 협정문에 서약을 해야 했던 그 시간 10시는 미국이 처음으로 세계대전앞에서 특특히 망신을 당한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는 정전협정조인문에 서명하고나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었다. ...승리없는 전쟁, 이것은 미국력사에 없는 술어이다.》

그 10시가 2016년 1월 6일 10시에 재현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핵무기는 저들의 독점적패권과 전횡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실지 미국의 핵과같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동반속에 빠뜨렸고 미국의 핵위협을 당하는 나라들은 아직 지구상 그 어디에나 있다. 그런 미국의 핵무기독점에 통째로 파멸구를 낸것이 바로 북의 수소탄시험이었다.

더우기 수소탄은 원자탄에 비해 비할바없는 위력을 가지고있으며 이를 보유한 나라는 불과 다섯손가락에 든다. 이런 강위력한 수소탄을 북이 보유했다는것은 미국에 있어서 청천벽력같은 죽음의 선고와 같았다.

1950년대의 7월 27일 10시에 패전을 인정하는 조인문에 미국이 도장을 찍게 한 북이 2016년 1월 6일 10시에는 미국의 포악한 핵무기독점력사를 끝장내는 멸망의 도장을 보란듯이 찍어놓았다. 이것은 또 한차례의 조미대결의 승리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오늘에 와서 미국은 핵을 가지고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위협공갈할수 없게 되었으며 끝없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되었다고 하시었다.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 《핵무기》 신화가 영영 맥을 추지 못하게 수소탄의 폭음으로 호되게 답새긴 조선의 10시.

그 시간은 부국강병을 바라던 민족의 숙원이 풀린 시간이며 미국을 또 한차례 굴복시킨 승리의 시간이며 조선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력적인가 틀은 세상앞에 보여준 시간이다.

조선이 우주를 향해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9시라는 그 시간에도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오늘도 세인들은 1960년 대말 조선반도에 일어났던 《푸에블로》 호사건을 생생히 기억할것이다.

당장 조선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것 같은 일촉즉발의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그 시기.

미국은 조선령해에서 저들의 간첩선이 나오포자 위협공갈과 우회적압력으로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공갈이나 압력도 통하지 않게 되자 조선해역에 항공모함과 원자력잠수함을 비롯한 한 함선들을 들이밀고 핵탄을 탑재할수 있는 비행기들도 수없이 띄워놓았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던지 미국은 《나토각료리사회》와 지난 조선전쟁참가국들의 모임까지 열고 《대책회의》를 하느라 분주함을 피워냈으며 하수인들의 입까지 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모종의 《폭격》, 《보복》, 《최후통첩》을 운운하였다. 그러나 북은 끄떡하지 않았다. 《(보복)》은 보복으로, 전면전쟁은 전면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행성에 울린 조선의 대답이었다. 결국 전쟁접경으로 치달았던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이 사회문을 내는것으로 끝을 보게 되었다.

1968년 12월 23일 오전 9시 판문점에서는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미군장성이 미합중국정부의 명의로 된 사회문에 서명하고 조선정부에 제출하였다. 불법무도한 간첩행위를 한 저들의 파렴치성에 대해 애당초 사회를 할 대신 기고만장처럼 허장성세하던 미국이 사회문을 들고 북에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날의 9시. 그때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징벌을 받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으며 세계의 면전에서 특특히 망신하였다고 하시었다.

군사, 정치, 도덕적인 참패를 당했던 미국은 오늘날의 9시에는 과연 어떤 참패를 당하였는가.

인류가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위성을 자기의 운반로켓으로, 자기의 발사대를 가지고 케도에 진입시키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을 꾸꾸는 나라는 많아도 실지 자기의 힘으로 쏘올리는 그런 나라는 별반 없다. 그러나 북은 100%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렸으며 련이어 오늘까지 4번째의 위성을 저 우주에 쏘올려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이 되었다. 과학기술적우세는 령강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라는것을 북은 말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의 퇴성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력속에서 우주강국의 위상을 과시하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북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아무리 미국의 압력과 제재가 횡포하다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타파해나갈수 있다는 자기 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의 발현이며 또 그 힘을 과학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담보한다는 배심과 자부의 발현이기도 하다.

북이 과학기술의 열세국으로 남기를 바라며 그로 하여 종당에는 저절로 무너지거나 손을 들고 나왔기를 바랬던 미국의 허황한 망상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미국은 1968년 12월 23일 오전 9시에 세계면전에서 조선으로부터 군사, 정치, 도덕적인 참패를 당했다면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에는 또다시 조선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

9시와 10시라는 이 시간에는 보다싶이 막중한 의미가 담겨져있다.

북에 있어서 승리와 영광의 시간으로 되는 이 9시, 10시가 미국에 있어서는 수치와 모멸, 치욕과 패배의 부한 우주강국이 되었다. 과학기술적우세는 령강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라는것을 북은 말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의 퇴성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력속에서 우주강국의 위상을 과시하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북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아무리 미국의 압력과 제재가 횡포하다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타파해나갈수 있다는 자기 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의 발현이며 또 그 힘을 과학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담보한다는 배심과 자부의 발현이기도 하다.

북이 과학기술의 열세국으로 남기를 바라며 그로 하여 종당에는 저절로 무너지거나 손을 들고 나왔기를 바랬던 미국의 허황한 망상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미국은 1968년 12월 23일 오전 9시에 세계면전에서 조선으로부터 군사, 정치, 도덕적인 참패를 당했다면 2016년

오늘도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매 시간, 아니 매 분분초초마다 조선은 강대성의 신화를 지구상에 새기고있고 미국은 종말의 고배를 들이키고있다.

조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그 시간을 조선은 앞당기고있다.

해트는 조선, 해지는 미국.

이것이 상승과 파멸의 서로 다른 길로 질주하는 조선과 미국의 판이한 두 모습이다.

재미동포 리정선

온 행성에 또 한차례의 충격파가 일어났다.

지난 1월 수소탄시험으로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북이 불과 30여일만에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4》 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또 다시 세계의 초점을 모았다.

북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에 발사할것!

김정은

2016. 2. 6》

이라는 친필명령을 하달 하시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무변광대한 우주를 향하여 거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조선의 4번째 위성이 성파적으로 날아올랐다.

9시, 북은 이 시간을 또 한차례의 대승리의 시간으로 역사에 아로새겼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위성아니다 미사일발사다 강력히 제재할것

우리도 위성발사체 만들겠다.

그건 일없어

남조선미국

일간망둥이의 가련한 추태

최근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한국형우주발사체》발사에 대해 떠들어 대고있다. 보수패당은 지난 2010년부터 1조 9 000여억원의 천문학적자금을 들여 개발하고있는 《위성발사체》의 시험발사를 다음해 12월에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상엔진진연소시험을 거의 매주 진행한다 어쩌다 하면서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공화국의 정당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발사》라며 집요하게 걸고들고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미쳐달 뛰는것이 누구인데 《제재》를 떠드는 그 입으로 저들도 《위성발사체》를 시험발사하겠다고 하니 낮가지이 이만저만 두렵지 않다. 저들은 해도 되고 동족이 하면 《위협》이라고 하는것이야말로 속통이 못먹은 대결광신자들의 비렬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불에 덴 황소처럼 놀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 《제재결의》니, 《단독제재》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보수패당의 《위성발사체》개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벼어리처럼 짹스리도 하지 않고있는것도 문제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공

공언히 자행되고있는 불공정성과 2중성의 극치를 보여주는것이다.

지난 2월 7일에 발사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 호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우주로 날아오른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들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기 위한것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우주연구기관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발사라고 매도하며 여러차례에 걸쳐 유엔무대에서 그 무슨 《제재결의》를 채택하는 날강도짓을 벌려놓았다. 물건대 이른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의 위성들은 운반

로켓이 아니라 《요술막대기》로 우주에 올려졌는가. 또 인공지구위성을 나르는 운반로켓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위성을 쏘올리는 모든 나라들의 운반로켓발사를 규탄하는 《제재결의》가 나오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유독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만을 걸고드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망둥은 식칼을 《총창》이라고 우겨대는 정신병자의 추태를 런상시키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국제문제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준수하여야 할 유엔무대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집행하는 쪽두각시들의 출판에 불과하며 《제재결의》라는것이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에 《합법》의 모자를 씌워놓은 모략문서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하고있다. 하지만 그 누가 뭐라고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해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존엄높은 지위는 변할수 없으며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인 위성발사를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이 초보적인 현실조차 분간하지 못한채 미국이 벌려놓은 광대국의 맨 앞장에서 란동을 부리면서 《제재》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망둥은 지금 남사람의 조소만 자아내고있다. 그 주제에 《위성발사체》개발을 부르짖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에게 따끔히 충고한다.

미국의 꼭두각시박에 못되는 식민주주의의 가련한 처지를 망각하고 외세의 도움으로 《위성발사》의 개꿈만 꾸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쏘아올린 공화국의 주제 위성이 민족의 재부라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일간망둥이가 분명하다.

본사기자 김철민

사대굴종행위 규탄

남조선의 경상남도 시민사회단체들이 3.1인민봉기가 있을 때로부터 97년이 되는 1일 집회를 가지고 박근혜패당의 친일사대굴종행위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반민족사대매국세력들이 청산되지 않고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역사가 이어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선언문은 친일파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정권》하에서 세계적인 망신으로 되는 성노예문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것은 평생 피눈물을 흘려온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은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안부문제해결의 전면 무효》 등의 글이 새겨진 대형현수막을 앞세우고 시위투쟁을 벌렸다.

본사기자

